

광주·전남 사랑의 온도 ‘미지근’…“온정 절실”

지난 4일 市 81.1도·道 72.9도

작년 86도·82.3도…다소 낮아

“특별모금으로 분산·불황 등 여파”

나눔으로 소외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희망 2026나눔캠페인’ 종료 시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지난해 대비 다소 낮아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하다.

5일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전남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광주 81.1도(41억5천165만원), 전남 72.9도(83억1천만원)를 기록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사랑의열매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희망 나눔캠페인’의 목표 모금액의 1



서의 차이가 8억7천만원 정도로 눈에 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광주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호우·산불 재해민 등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이 평소보다 많았다”며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모금처가 많아지면서 기부금이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여수·광양신단에 입점한 기업들의 기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남은 캠페인 기간을 고려하면 양 지역 모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진 않지만, 전년 대비 저조한 상태여서 지역민의 참여가 절실히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전날 기준 전국 통합 수은주는 921도였으며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는 6위, 전남은 10위에 머물고 있다.

/이연상 기자



논산 육군훈련소 병오년 새해 첫 입영식
5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2026년 새해 첫 입영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승강기 교체 시 보행 약자 대책 마련돼야”

지체 장애인 진정 제기 인권위 판단

공동주택에서 승강기를 교체할 때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건 결

과적으로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1급 지체 장애인 A씨가 전남 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장

애 차별’ 진정에서 피정진인 측에 지자체 등과 연

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해당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A씨는 휠체어 이

용자로 매주 5회 이상 병원을 찾아 물리 치료를 받

아왔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노후 승강

기 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 문제를 불거졌다.

이에 A씨는 피정진인 측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승강기 이용 제한은 보행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 노

약자 등 보행 약자에게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승강기 관련 공사 일정을 사전에 협의 조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원봉사자 그룹을 만들어 식료품 전달이나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137명 보증금 95억 편취 ‘순천 전세 사기’ 일당 중형

조례동 모아파트 218채 매수

가족 등 5명 ‘징역 3-10년’

최근 같은 아파트서 또 피해

청년 등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 원을 기로한 전세사기 일당이 중형이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법원은 5일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공

인증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 대해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인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 5년, 7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범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순천시 조례동 모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와 그 아들 등이 포함된 일당은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범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 자본 없이 사채, 대출금, 전세 보증금 등 부채만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부동산

업을 지속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검은 보증금 흐름에 집중한 보완 수사로 범행 구조, 공모 관계, 범죄 순수의(12억원) 등을 밝혀냈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12가구가 계약 기간 만료에도 4천800만~7천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해당 임대인은 모두 30여 채를 소유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여평대가 많은 이 아파트는 2천794세대 규모로 619세대는 범인, 2천175세대는 개인이 소유했다.

/순천=정기기자

지인 돈 가로채고 금고 훔친 40대 방문판매업자 구속

광주 북부경찰, 추가 피해 조사 중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보관 중이던 금고까지 훔쳐 달아난 방문판매업자가 구속됐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및 차용 사기 혐의를 받는 방문판매업자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북구 문흥동의 한 아

파트에서 지인인 B(60대·여)씨의 금고를 통해

금고 안에는 현금 등 약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해당 주거지를 여러 차례 드나들며 금고 보관 장소를 미리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9~10월께 광주·순천에서 방문판매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 2명에게 각각 1천만원과 2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기장판 등 물품 판매를 이유로 “결제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로 확인됐다. A씨가 벌리거나 훔친 돈은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달 22일 순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

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찬웅 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루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